

상처를 치유하는 '울음' 과 '노래'

김인숙 《유리구두》, 이해경 《그 집 앞》을 읽고

김미현
문학평론가

상처가 나면 그곳에 소금을 치는 사람이 있고, 약을 바르는 사람도 있다. 두 경우 모두 치유를 위한 처방일 것이다. 그러나 소금을 치는 것이 불로 불을 끄려는 것이라면, 약을 바르는 것은 물로 불을 끄려는 것에 가깝다. '체대로 아파하기'와 '감싸기'로 구분될 수 있는 이런 두가지 처방이 문학에서는 '울음'과 '노래'의 양식과 연결된다. 김인숙과 이해경은 유난히 상처가 많은 작가들이다. 그들이 죽음과 부재만을 낳는 정신적 자궁을 지닌 작가들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아프면 다른 존재들의 이름이 더 잘 보이는 법이다. 그래서 김인숙은 울고, 이해경은 노래부른다. 이처럼 상처를 치유하는 서로 다른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 그들의 소설이다.

유실몽(遺失夢)의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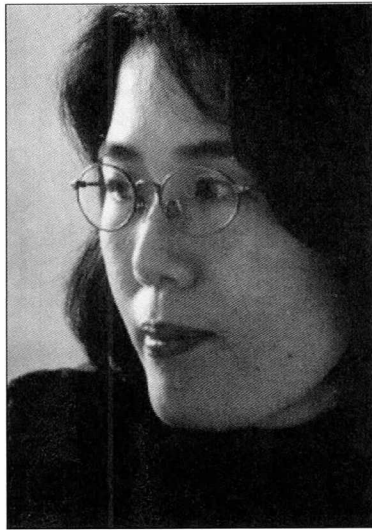
김인숙의 소설은 열정이나 절망, 분노조차 추억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꿈 유실몽(遺失夢)의 기록이다. 그리고 그런 정신의 마비를 깨게 하는 과거 사람들간의 해후의 고백이기도 하다. 80년대라는 과거의 기억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시 만나게 되면서 소금을 뿌려두었던 인물들의 상처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다. 상처의 삼투압작용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녀의 소설이 의미나 이유를 가지고 살 수 있었던 80년대에 바쳐지는 헌사이자 만가(輓歌)인 것도 이 때문이다.

왜 김인숙은 그토록 80년대라는 과거에 연연하는가. "나는 '그때'를 빼놓고는 글을 쓸 수가 없습니다. 설령 그때가 황금대리조차 없던 수렁이었던들, 설령 그때가 선 자리에서 한바퀴만 돌려놓아도 길을 잃어버리는 길은 어두운 나의 어쩔 수 없는 안타까움이었던들... 그래도 그때가 내겐 전부였기 때문입니다."(《풍경》) 이런 고백이 뼈아픈 이유는 그 전력투구성이나 절대성 때문이다. 직접 불길 속으로 뛰어들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부끄러움을 유발시키기도 했지만, "더듬거리는 말투와 작은 목소리와 여린 손목"만을 지닌 그녀에게는 유일한 존재방식이자 세상과의 소통방식이 바로 글쓰기였기 때문이다.

물론 김인숙에게도 과거의 삶이 행복과 희망으로 가득찬 보물상자는 아니다. 오히려 과거는 뚜껑을 열면 열수록 온갖 질병과 고



김인숙씨.



이해경씨.

통만 튀어나오는 판도라의 상자에 더 가깝다. 그러나 "과거는 타락까지도 열정이었던" (《유리 구두》) 시대였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현재는 목적이나 가치가 없는, 그래서 타락할 일조차 없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그 판도라의 상자에 유일하게 '희망'이 남아 있기에 김인숙 또한 계속 뚜껑을 열 수 밖에 없다. 그런 희망은 여러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 신데렐라의 유리 구두가 아니라 길이와 모양이 서로 다른 소아마비의 다리에 맞는 구두(《유리 구두》), 생의 거대한 짐이나 거역할 수 없는 운명으로부터 탈주하게 해주는 말뚝소리(《아버지의 얼굴》), 수령이나 함정인 줄 알고 들어간 곳에서 발견되는 황금다리(《풍경》) 등이 바로 희망의 상징들이다. 이런 희망들은 '거울의 뒷면'이나 '세상의 뒤통수'까지 볼 줄 아는 혜안을 가져야 발견될 수 있는 숨은 그림들이다. 김인숙은 그런 숨은 그림 찾기를 통해 상처에서 새 삶을 돌아나게 한다.

'사랑'의 탐구와 실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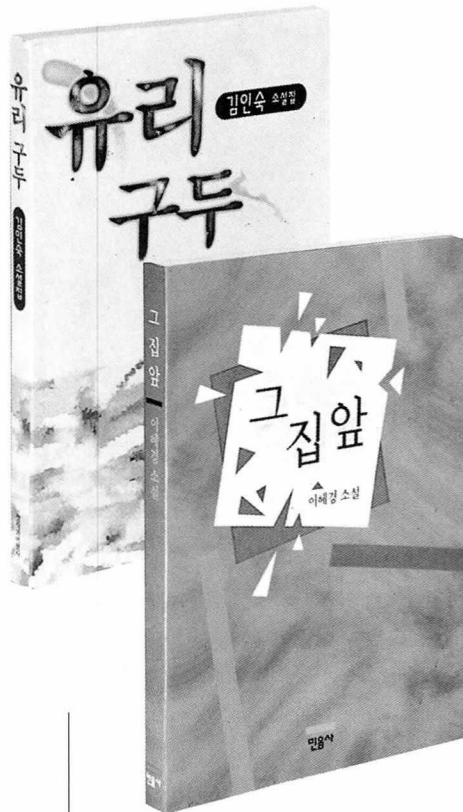
이해경은 '집'의 소설가이다. 그래서 가족간의 관계가 소설의 배어나 원형질로 작용한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해경에게 집은 벽 같은 요새이거나 불안정한 가건물이다. 이런 모습이 그녀의 등단작인 <우리들의 펄럭>에서부터 언젠가는 폭삭 주저앉을 균열의 징조를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집을 이처럼 부정적으로 만드는 것은 주로 남성들이다. 이해경의 소설에 등장하는 남성

"김인숙의 소설은 열정이나 절망, 분노조차 추억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꿈 유실몽의 기록이다. 이해경은 따뜻한 소설가이다. 그녀의 세상이나 남성성에 대한 비판은 공격적이지 않다."

들은 너무 힘이 세거나 너무 약해서 가정의 울타리를 파괴한다.

그러나 남성들은 좀더 냉철하게 세상의 유죄성이나 악마성에 대처하지 못했다는 점 때문에 가해자가 된 것이다. 스스로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남성들 또한 세상에 의해 상처입은 피해자라고 할 수 있다. 세상 자체가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원리에 지배되는 '밀림'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젓은 골짜기>에서 이해경은 명예퇴직당한 가정의 목소리를 통해 파시스트적인 가속도를 보이는 현대의 발전 논리를 비판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해경은 따뜻한 소설가이다. 그녀의 세상이나 남성성에 대한 비판은 공격적이지 않다.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감싸기 위해서 공격하기 때문이다. 그녀에게는 사랑이 모자라는 것보다는 넘치는 편이 낫다. 그녀는 자신의 글이 "사람의 허기를 눈앞에 알아보고 어루만지는 손"(오늘의 작가상 수상소감)이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그녀의 가장 소중한 존재방식이자 글쓰기의 목표는 '사랑'의 탐구와 실천이 된다. <노래하는 여자 노래하지 않는 여자>, <그늘바람꽃>, <그 집 앞>의 여성인물들이 실천하는



이타적인 사랑이 고통스러우면서도 낭만적으로 그려지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따뜻한 건 다 좋지만 그래도 가장 좋은 건 사람 체온"(《노래하는 여자 노래하지 않는 여자》)이라는 믿음은 그녀의 소설 속 인물들을 노래부르게 만든다. 이때의 노래는 대지 같은 어머니의 품에서 싹트는 사랑의 꽃이다.

김인숙 소설의 딜레마는 그녀의 과거에 대한 몰두나 집착이 고착과 퇴행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이다.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잊혀진 것은 아니다. 이해경의 소설에는 보살핌이나 조건 없는 베품의 원리에 충실한 여성인물들의 인내나 희생심이 자칫 자아정체성의 발견이나 자아실현에 걸림돌로 작용할 위험이 있다. 마음이 너무 착한 여성들은 남에게 악을 행할 빌미를 준다는 점에서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의 소설이 지닌 미덕은 그런 세상과의 불화 혹은 화해가 도식적인 귀결이나 손쉬운 타협의 결과가 아니라 뾰족한 쉼의 흔적이라는 사실이다. 그들은 눈이 아니라 몸으로 소설을 쓴 것이다. 그렇다면 독자들 또한 그들의 책을 눈으로 읽지 말고 손으로 만지면서 읽어야 한다. 그래야만 독자들도 그들의 상처에 감염될 수 있을 것이다. ❖

·《유리 구두》 창작과비평사/A5신/272면/7500원
·《그 집 앞》 민음사/A5신/296면/7500원